

이지상의 ‘여행과 삶’



도시 여행의 소중함

도시에 대해 투덜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험한 자연에 갔을 때 도시의 고마움을 깨닫는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원시 자연림이 그득한 보르네오 섬에서 역설적으로 도시의 소중함을 깨달았었다. 보르네오 섬 사바 주에 있는 해발 4102미터의 키나발루산 등반, 산다칸이란 도시 근처에 있는 오랑우탄 재활지, 근교 바다의 섬에서 거북이가 알 낳는 것을 볼 때까지는 대자연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좋았다.

그러나 산다칸에서 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두세 시간 들어간 원시림의 어느 캠프에서 묵는 동안엔 너무도 힘들었다. 조그만 여행사에서 설치해 놓은 캠프에서 정글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었는데 오두막에는 문도 창문도 없고, 지붕과 구멍 난 모기장만 있었다.

너무 허름해서 난감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날 밤, 보트를 타고 사파리를 하는 시간은 좋았다. 고요한 어둠을 뚫고 강의 상류로 올라가 서치라이트 불빛을 비추며 깊은 원시림 속에서 동물들이 우짚는 소리를 들었다. 밤에 활동하는 악어와 박

쥐와 새들도 보았다. 청명한 하늘과 고즈넉한 달빛이 어우러진 태고 적의 어둠과 원시림은 신비로웠다.

문제는 첫날밤부터 이어졌다. 밥은 캠프에서 준비해 준 것을 먹었고 미네랄워터도 미리 가져가 문제가 없었는데 몸을 씻기가 힘들었다. 더러운 강물을 받아서 샤워를 해야만 할 상황이었다. 그거야 안한다 하더라도 세면만은 미네랄워터로 해야 했고 뚫어진 모기장으로 모기가 들어와 모기약을 몸에 바르니 속이 어질어질하고 기분이 안 좋았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오전이 되자 서서히 습한 공기가 달궈지고 뜨거운 지열이 올라와 숨이 턱턱 막혀 왔다. 바람도 뚝 끊긴 상태였다. 해가 솟아오르자 온몸에 힘이 빠지고 계속 모기떼가 달려들었다. 말라리아 약은 먹고 있었지만 짜증이 났다. 막사 안이 시원한 것도 아니었고 악어가 있는 강물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갈 데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다.

오후 5시쯤 되자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져 조금 살 만해졌는데 밤이 되

면서 몸이 덜덜 떨리며 설사가 나오고 토하기까지 했다. 말라리아에 걸린 것일까, 더위를 먹은 것일까? 불안했다. 설명 말라리아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또 일사병도 심해지면 위험하니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결국 1~2주일 묵다 올 생각이었지만 2박을 하고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 가보니 다행히 말라리아는 아니었다. 더위를 먹은 것 같았다.

사바주의 주도 코타키나발루 시내의 예언 바랍이 감도는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니 살 것 같았다. 그곳에서 나는 도시인이란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낯선 정글은 인간이 살기 불편한 곳이다. 정글 속의 캠프도 물과 음식을 도시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다. 프랑스의 환경 철학자 오귀스탱 베르크는 에쿠메니란 단어를 이용해 인간의 주거지와 도시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한다.

“에쿠메니는 ‘주거지, 집’을 뜻하는데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부분을 말하며 생태학적인 조건과 함께 가치·윤리·상징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런 도시는 인간에게 모태와도 같은 에쿠메니다.”

그런데 근대화 과정에서 에쿠메니 많이 파손되었다. 생태학적인 파손과 오염은 물론 가치·윤리·상징의 세계가 효율성·기능성·생산성이라는 가치 아래 무너졌다고 오귀스탱 베르크는 비판한다. 그는 도시를 무조건 비판하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교조적인 자연 보호주의자가 아니다. 인간은 인간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주지 중의 거주지인 도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을까? 인간은 도시를 존중해야만 한다. 인간의 가장 살기 좋은 터전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자비한 도시 개발 계획은 생태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에 서린 역사·윤리 등의 상징적인 차원도 파괴한다. 또한 도시민들의 편안함과 욕망의 극대화는 농촌과 전 지구의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삶의 흔적과 문화가 담긴 도시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터전이며 흥미로운 여행지임은 분명하다. <여행작가>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커피 원전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제야, 마침내, 비로소 시민의 자각이 운위된다. 한다 하는 평론가나 학자들의 요즘 말과 글들은 “이젠 더 이상 불의한 권력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정치권력을 감시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 자연 학연에 매몰되지 말고 참된 일꾼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고도 말한다.

물론 동의한다. 그러나 너무도 늦었다. 그리고 시민의 자각은 장삼이사들 보다는 이른바 엘리트들, 지배계급들, 중산층과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더 절실한 숙제다. 왜냐면 지금 남한사회의 엘리트, 지배계급들, 중산층과 그 이상의 사람들은 ‘최순실형 협잡’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할 염사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협잡(挾雜)에 대하여

최순실형 협잡이란 무엇인가. 권력에 기생하여 특권을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행위다. 나눠받은 특권이란 갑부나 위세, 인허가, 사치, 향락, 돈일 것이다. 땃가는 맹목적 복종이다. 음험하지만 보상이 확실한 거래다. 그리고 그 협잡은 효능의 연속화를 위해 점점 더 큰 부조리를 생산해내며 동참자의 수를 늘린다.

2공화국 시절 리기봉과 양자 리강석 일파가 그랬고, 3공화국 시절 충청간부들이 그랬고, 유신시절 차치철 일당이 그랬고, 5공시절 전경환 패거리들이 그랬고, 6공 시절 박철언 추종자들이 그랬고, YS시절 김현철 주변 아침배들이 그랬고, DJ시절 정도는 달했지만 동교동사단이 그랬고, 노무현시절 운동권 패거리들이 그랬고, 이명박시절 이상득과 영포출신들이 그랬다. 그래서 최순실형 협잡은 새로운 것도 없는 특권을 향한 줄서기에 다름 아니다. 줄을 서야 승진이, 낙하산이, 임찰이, 납품이, 형사상 면탈이, 허가가, 명예가, 인기가 손에 쉽게 잡히기 때문이었다. 최순실이 다른 건 그 주체가 앞의 경우들보다 훨씬 교양과 품위가 없는 청담동 여편네였다는 것 뿐이다.

유구한 협잡의 역사 속에서 소외된 건 말없는 시민들, 토달지 않는 납세자들, 어

디 뺨을 대고 줄을 대בל래야 아는 권력이라곤 군정주사 십년째인 처삼촌밖에 없는 중하층 국민들 뿐이었다. 그러나 시민의 자각을 말하는 논객들은 정확히 ‘엘리트와 지배계급과 중산층 이상 국민들의 자각’이라고 고쳐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각은 부당한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배타적 특권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용기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양인의 자부심이자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기는 품격이다.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나는 지난 여름 이 칼럼란에 ‘엘리트여, 타락을 멈추라’는 글을 썼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라는 검사들의 겉잡을 수 없는 일탈을 보고 분개를 넘어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 칼럼의 끝은 이렇다. “...이승만 이후 남한사회의 부패는 더께를 쌓아왔다. 주로 기업, 관료, 군, 의료계, 학계, 교육계의 부패가 그 내용이다. 그런데 그 부패가 이젠 입계점에 이른 것 같다. 타져버릴 것만 같다. 무너져버릴 것만 같다. 엘리트여, 청빈까지지는 바라지 않는다. 제발 거기서 타락을 멈추라!”

입계점을 넘은 가마솥의 물이 끓듯이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 행동방식은 통상의 양태와는 너무 달

랐다. 지난 수 주간의 박대통령 퇴진촉구 집회는 아름다웠다. 장엄하고도 신랄했으며 에너지로 충만했다. 머잖아 박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아랍의 자스민혁명이나 동구의 오렌지혁명처럼 외신들은 한국민들의 이번 행동을 ‘촛불혁명’이라고 이름 붙일지도 모르겠다.

지배계급이 혁명을 두려워 하는 이유는 방화 약탈 살인 강간의 지옥도(地獄圖)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백만군중이 한자리에서 벌이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평화 파포먼스였다. 노래와 풍자와 자유발언과 간식과 자녀 교육과 옆사람에 대한 배려와 말끔한 청소가 동반되는 문화현상이었다. 권력의 추악함을 규탄하는 집회로서는 아까울 정도의 품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시민의 자각이 빛어내는 호모니다. 이 자리에 고공급료나 판검사 변호사나 대기업 간부나 재벌자녀들이나 의사나 교수는 없거나 소수였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떤 정치집단이 집권을 하건 최소한 촛불혁명에 나타난 시민의식을 능가하는 도덕률과 교양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협잡으로는 안될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진전한다.

社 說

야권 흔들림 없이 대통령 탄핵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엿그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등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조건부 퇴진’ 의사를 밝히자 여야는 물론 정파 및 대권 주자별로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이란 퇴진 로드맵을 놓고 충돌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인 친박계는 당장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면서 임기 단축의 방법론으로 개헌을 주장하며 조속한 여야 협상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개헌이 전지전능한 해법은 아니지만 광장의 합성을 통해 반영된 국민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새누리당 비주류 측은 대통령에게 내년 4월까지 사퇴할 것을 촉구하면서 친박계가 주장하는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 내 분열 조짐과는 달리 야 3당은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하야와 탄핵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임기 단축

을 위한 여야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 측내를 들여다 보면 대권 주자별로 개헌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분열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조건부 퇴진 제안이 개헌을 통해 탄핵과 하야 정국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가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택에만 골몰해선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얻은 절호의 기회에서 군부정권을 종식시키지 못한 안타까운 기억을 갖고 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호헌을 밀어붙이려다 정권 붕괴 위기에 몰리자 개헌 카드로 야권의 분열을 유도해 정권을 재창출했다.

박 대통령의 조건부 퇴진 제안 역시 개헌을 통한 정권 재창출 노림수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야권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흔들림 없이 일사불란한 태도를 갖추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촛불 민심이 종북? 아직도 이런 의원 있나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 “좌파 종북(從北) 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발언은 여당 일부 의원들의 그릇된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망발이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라면서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다 정해 시위에 나온다. (26일 촛불시위 당시) 오후 8시 1분간 불을 끈 것도 조직적으로 리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 사람들은 조직과 자금을 다 준비했다. 여기에 당하면 안 된다”며 “좌파 종북 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해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좌파와 언론이 선동한 것이다.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 그대로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

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30일 “촛불을 든 190만 국민에 대한 매도이고, 마음으로 촛불을 든 90% 이상의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질서 있는 평화시위로 높은 민주 의식을 보여 준 위대한 우리 국민을 또 다시 선동이나 당하는 집단으로 폄하하다니, 정녕 민심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누리꾼의 비난 댓글도 거세지고 있는데,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으로 경복 상주·군위·의성·청송의 재선 의원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아직도 이런 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면 한심하다. 우리는 이들 의원의 이름을 다음 선거 때까지 꼭 기억해야 한다.

無 等 鼓

지난 11월 초순, 인터넷 검색어에 팍송 ‘fix you’가 등장했다. 2005년 발표된 노래인데, 최근 내한 공연 티켓 4만 5000여 장이 몇 분 만에 매진된 ‘월드플레이어’의 대표곡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이 지금은 이혼한 아내 기네스 펠트로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위로를 담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오래만에 노래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영상을 함께 보게 됐다. 70대~90대 노인들로 구성된 코러스 밴드 ‘Young@Heart’의 다큐멘터리 ‘로큰롤 인생’(2008)이다. 영화 속에선 코에 산소호흡기를 단 프레드 니틀 할아버지가 이 노래를 부른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때/ 원하는 걸 얻었지만 필요한 건 아닐 때/ 까무러칠 듯 힘들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엉켜버려/ 눈물이 뻘을 타고 흐르네/ 대신할 수 없는 뭔가를 잃었을 때/ 사람이 헛되이 났을 때/ 이 빛이 갑갑이가 돼 줄 거야/ 따뜻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널 어루만져 줄게.” 듀엣으로 연습하던 이가 세상을 떠나 그는 홀로 노래를 부르고 관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어떤 노래’이 순위에 올라 있을 때가 있다. 유명 가수의 신곡이 아니다. 오래된 곡이거나 인디밴드 곡일 때도 있다. 이 노래들은 순서희 영커가 선곡하는 ‘JT·BC 뉴스룸’ 연막곡이다. 지금까지 ‘안락하신가영’(백가영)의 ‘우울한 날들에 최선을 다해 줘’나 ‘브로콜리 너마저’의 ‘그 모든 진짜 같은 거짓말’, 그리고 요요마·제임스 테일러의 ‘Here Comes The Sun’, 비틀즈의 ‘Norwegian Wood’, ‘Stairway To Heaven’ 등이 전파를 뒀다.

지난 20일엔 루시 소호츠키를 단 프레드 니틀 할아버지가 이 노래를 부른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때/ 원하는 걸 얻었지만 필요한 건 아닐 때/ 까무러칠 듯 힘들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엉켜버려/ 눈물이 뻘을 타고 흐르네/ 대신할 수 없는 뭔가를 잃었을 때/ 사람이 헛되이 났을 때/ 이 빛이 갑갑이가 돼 줄 거야/ 따뜻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널 어루만져 줄게.” 듀엣으로 연습하던 이가 세상을 떠나 그는 홀로 노래를 부르고 관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기 고



류 재 한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아시아문화학회 회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11월 25일로 개관 1주년을 맞았다. 문화전당처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해외 유수 문화도시들의 문화 인프라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린다. 거대한 문화 인프라의 조성을 통해 도시용성의 전략을 세웠던 문화도시들이 벌써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칭송받았던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은 미술관 프로젝트로 인해서 바스크 주 정부에 2억 4000만 달러의 재정의 감소를 안겨주었다. 미술관의 개관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도 900 여 개에 불과했다. 1994년에 개관한 영국 셰필드의 전국대중문화센터 역시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출범했다. 하지만 센터의 관람객 수는 예상 수치의 25%에도 이르지 못했고 그 결과 1년을 못 넘기고 문을 닫고 말았다. 독일 라이프치히 에슬박물관 역시 장미빛 전망

전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과 함께 출발했다. 하지만 개관 이후 관람객은 급감했고 그 결과 폐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었던 문화 인프라의 위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바로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압력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조직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능력이 바로 ‘자기 조직화’(self-organisation)이며 세 가지 핵심 요건으로 구성된다. 첫째 요건은 ‘지적 상호작용’(knowledge)이다. 문화시설의 정체성과 비전, 동기부여, 방향설정을 정립하기 위한 지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프랑스 릴의 매종폴리는 ‘플랑드르 문화’의 전당대, 마르세유의 MuCEM(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은 남유럽(지중해 문명과 문화)의 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체성과 비전, 방향을 지적 상호작용을 통해 확정했고 두 문화시설은 정체성과 비전을 잘 담아내고 있다.

반면에 ‘아시아문화의 창’을 표방하고 있는 전당은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방향설정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대한 아시아의 범주를 어디까지 정하고 다룰 것이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해 전당은 두고두고 고

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요건은 ‘휴먼웨어의 힘’이다. ‘지적 상호작용’의 결과인 정체성과 비전을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 운영인력이 많아질 것을 의미한다. 마르세유(인구 86만 명)의 MuCEM은 국가 박물관으로 전문 운영인력 123명(정규직)에 이른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중해 국가들의 핵심소재인 환경과 물, 문화 관련 다양한 전시와 토론과 포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의 소장 작품의 관리와 전시, 관람객의 안내는 전문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방문객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규모 면에서 MuCEM(4만4000㎡)의 3.6배가 넘는 전당(16만 ㎡)의 전문 운영인력은 150명(아시아문화원 정규직 90명 정도·비정규직 10여명·국립아시아 문화전당 50여명)에 불과하다. 문화전당의 구성원이 문화부 소속 행정공무원임을 감안할 때, 실제 전문운영인력의 숫자는 10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5개원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운영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전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세 번째 요건은 예산 즉 ‘펀드’(stock)이다. 자기조직화에서 예산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펀딩소스의 확보는 문화시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 기

반이 된다. 여기서 문화시설이 펀딩소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펀드레이징의 명분과 실리가 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밀레니엄 2000프로젝트’(핵심 프로젝트:데이트모던 갤러리의 설립과 운영)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활용한 펀딩소스의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정부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펀딩소스로 문화예술박물관 내셔널로프(국민복권)를 발행, 복권판매금액의 50%는 복권당첨금지급에, 28%는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특히 특수 공익목적사업 사용내역 중 20%는 밀레니엄 2000프로젝트에 할당되었다고 한다. 전당 역시 펀딩소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 전당의 핵심 콘텐츠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모래 때문에 중요하지만 향후 전당의 펀드레이징의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이면 문화전당의 운영의 책임은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양된다. 다시 말해서 전당의 법인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지금도 허덕거리는 전당이 3년 4개월 후 법인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조직화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세계적 문화 인프라들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조직화의 능력의 유무에서 유래하며 문화도시 성장론의 위기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지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년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